

# 男便의 生活時間構造와 家庭生活問題에 관한 夫婦의 知覺

— 長時間勞動의 影響을 중심으로 —

## Husband's Time Spent Structure and Husband and Wife's Perceptions of the Family Life Problem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조 교: 李 賢 娥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Hyun Ah, Lee*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李 基 榮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Ki Young, Lee*

이 논문의 목적은 남편의 長時間勞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에서 남편이 직업노동과 관련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어느정도나 되며, 이것이 다른 生活時間配分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家庭生活問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男便의 總職業勞動時間의 實態를 보면, 平日이 11시간 43분, 土曜日이 8시간 21분, 日曜日이 1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평일 직업노동시간을 5집단으로 나누어 다른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노동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해서 다른 모든 生活時間 - 生理的, 家事的, 社會文化的 時間 - 에 소비하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男便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에 있어서는, 男便은 주로 자신의 피로회복문제나 스포츠·여가시간 부족문제, 생활의 여유가 없다는 문제, 가족단란시간 부족문제, 자녀와의 접촉시간 부족문제 등을 심각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婦人은 남편의 건강염려, 남편의 자녀접촉시간 부족, 가족단란시간 부족, 남편과 취미, 스포츠를 할 시간 부족,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각하였다.

3) 男便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은 男便의 경우에는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직업노동시간,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婦人의 경우에는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성역할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 I. 문제제기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生産과 消費의 장소가 분리되어, 家庭과 職場영역에서 부부간 역할분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분화는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의해서 “분리된 세계의 신화(myth of separate worlds)”로 더욱 강화되었다(Kanter, 1977). 이런 구조하에서, 男便은 자신의 職業役割에만 충실하면서, 家族내의 여러 役割들은 전적으로 婦人의 책임으로만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된 세계의 신화”는 生態體系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이라는 개방체계가 외부의 사회체계와 相互作用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고, 특히 직업세계로 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임금이나 직업노동시간, 그 외의 직업적 요구등의 職業條件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Voydanoff, 1984).

가족은 직업적 역할을 통해서 경제체계로 부터 자원을 획득하기 때문에, 職業의 특성과 요구가 家族의 내부의 相互作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ldous, 1969 ; Rapoport, 1965 ; Scanzoni, 1970 ; Voydanoff, 1984). 특히, 職業勞動時間은 직업영역이 가정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制約要因이다. 즉, 직업노동을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시간이고, 이는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제약하게 되므로, 직업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직접적으로 직업-가족관계의 葛藤과 관련되는 것이다(Bohen & Vivers-Long, 1981 ; Keith & Schafer, 1980 ; Pleck et al, 1980).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長時間勞動으로 유명한데, 최근 해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1992년도 ‘노동통계연감’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9.3시간으로 미국(40.7시간), 독일(39.2시간), 일본(40.0시간)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長時間勤勞時間은 현행 법정근로시간

44시간과 비교해 볼 때, 약 6시간정도 초과하는 수준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사회구조적으로 성역할태도가 傳統的인 것에서 近代인 것으로 변화하고,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전반적인 삶의 質과 福祉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가족구조 상으로도 核家族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職場과 家庭과의 상호작용이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남편들은 직업생활 뿐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기대되어, 그야말로 슈퍼맨에 가까운 남편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장시간을 직업노동에 보내야 하는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時間葛藤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時間不足은 가정생활의 여러측면에서 나타나는데, 부부대화시간의 부족이나 자녀와의 접촉시간부족, 남편자신의 피로회복과 수면시간의 부족, 취미나 스포츠등의 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나타난다(森ます美, 1989).

또한 가족을 개개 가족원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단위로 볼때, 남편의 장시간노동은 남편자신에게 뿐만아니라, 그 가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편보다 부인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기도 한다(森ます美, 1989).

기존의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일반론적인 주장만이 제기되었을 뿐, 실제로 직장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시간구조나 주관적인 지각과 관련하여 분석한 것은 없었으며, 특히 부부를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남편자신의 생활 뿐만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실제 남편의 生活時間構造와 전체 家庭生活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男便과 婦人 양쪽의 측면에서 다루어봄으로써, 남편의 직장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직업노동관련 정책이나 가족관련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남편들이 職業生活과 家庭生活의 均衡을·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1. 男便의 職業勞動時間實態

대부분 인간의 하루생활은 생계의 주요 원천을 위한 勤勞時間, 사회문화적 삶으로서의 餘暇時間, 그리고 다음날의 노동력 재충전을 위해 필요한 睡眠과 休息時間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모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근무시간을 연도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볼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長時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 서독, 프랑스, 일본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주당 약 10시간 정도가 더 많은 수준이며, 경쟁상대국인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등과 비교할 때도 주당 약 2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들에서 조사한 직업노동실태를 살펴보면, 실제 법정근로

시간이나 노동부 발표 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經濟研究院이 1천 5백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에도 약 60%의 업체에서는 여전히 하루 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 노동시간은 하루 약 10시간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일보, 91년 1월 25일자).

三星生命이 지난 93년 8월 '직장인의 시간관리'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평일 10시간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고 응답했으며, 67.4%가 주말에도 5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고 답하였고, 또 81%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해 하루 12시간 이상을 직장생활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동아일보, 93년 9월 9일자).

또한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92)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출근시간이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인 경우가 39.9%로 가장 많고, 퇴근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하는 비율이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7시 이후에 퇴근 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직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보통 11시간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또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가 23.8%로 가장 많아, 결국 직업노동과 관련해서 소비한 총시간이 약 13시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남편들의 평균직장노동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장시간으로 거의 하루에

표 1. 제조업 주당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국 가	단위 : 주당노동시간							
	한 국	미 국	서 독	프랑스	일 본	싱가포르	자유중국	홍 콩
1965	57.0	41.2	—	45.6	44.3	—	—	—
1970	52.3	39.8	43.8	44.8	43.3	—	—	—
1975	50.5	39.5	40.4	41.7	38.8	48.4	—	—
1980	53.1	39.7	41.6	40.6	41.2	48.6	50.9	46.2
1985	53.8	40.5	40.7	38.6	41.5	46.5	47.4	44.8
1989	50.7	41.0	39.9	38.8	41.4	—	47.0	—
1990	49.8	40.8	39.5	38.8	40.8	48.5	46.5	44.0
1991	49.3	40.7	39.2	38.7	40.0	—	—	—

자료 :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각 연도.

노동경제연구원, 노동시간단축의 이론과 실제, 1991.

반이상을 직업노동에 투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정규근무시간이외의 직장관련 모임시간까지 합하여 계산하면, 생리적 시간이외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직장과 관련하여 소비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2. 男便의 職業勞動時間이 生活時間構造에 미치는 影響

직장노동시간이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수면등의 生理的 時間과 餘暇時間, 家事勞動時間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선, 生理的 時間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三星生命이 직장인의 하루시간관리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73.5%가 하루 평균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선일보, 93년 9월 9일자), 한국궤궤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도 남성들이 거의 6시간 30분정도 수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선일보, 92년 12월 21일자). 이처럼 우리나라 남성은 직업노동시간에 하루 반 이상의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다음날의 勞動力再生産을 위한 기본적 시간인 수면시간조차도 직업노동시간에 제약을 받아 매우 적은 수준밖에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평일 직장노동시간은 수면등의 생리적 시간뿐 아니라, 餘暇時間에도 부적인 영향을 준다(Nickols & Abdel-Ghany, 1983). 많은 연구들에서 '時間不足'을 중요한 물리적 여가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의숙, 1991). 韓國産業經濟研究院이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2%가 여가 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시간의 부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大陸研究所의 연구에서도 평일 평균여가시간이 2시간 이하가 전체의 37.2%로 가장 많고, 3시간정도도 24.2%로 나타났고(한국경제신문, 90년 7월 30일자). 이 조사에서도 역시 여가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時間不足'으로 44.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한편,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은 家事勞動參與時間에도 영향을 주는데, Nickols & Metzen(1978)은 남편의 직장근무시간이 가사시간의 제약요인이 된

다고 하였고, Kamo(1988)는 시간 이용가능성(time availability) 가설로 남편이 이용가능한 시간이 많은 경우에 가사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하여 남편의 직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사이에는 부적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편의 가사참여를 분석한 윤명희, 임정빈(1985)의 연구와 송혜립(1988)의 연구에서도 역시 남편의 근무시간이 남편의 가사분담시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라 하였다.

위의 조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계약하에서, 남편의 경우 직업관련노동에 우선적으로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수면, 휴식등의 생리적 시간이나 스포츠, 오락, 교양등의 여가시간은 그 나머지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男便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

남편의 장시간노동은 가정생활에 여러가지 측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시간적 차원에서 부인과 자녀와 접촉시간의 부족을 초래하고, 또 남편 자신의 취미나 스포츠와 같은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의 부족을 초래하며, 수면시간부족, 피로회복시간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森ます美, 1989). 그 이외에도 생활전반에 여유가 없다든지, 항상 쫓기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든지 하는 심리적 차원에서라도 장시간노동의 영향이 나타난다. 森ます美(1989)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장시간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의 입장에서조차 매우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보다는 부인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남편의 직장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3가지 차원-社會經濟的 資源, 時間空間的 제약, 心理的 影響(Jeylan & Jayne, 198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社會經濟的 資源의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가족에게 있어 남편의 직장노동이 유일한 수입의 근원이므로, 남편의 직장노동생활이 가족 관계에 방해가 되더라도, 직업으로 인한 희생과 갈등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Piotrkowski, 1978).

둘째, 時間空間的 制限의 차원에서 직장노동시간의 양, 직업노동스케줄 등이 제약요인으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장노동시간의 양이 많고, 직업노동스케줄의 융통성이 적은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직업적 요구가 많이 때문에, 자녀와 놀아줄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 늘 불만거리가 되는등 가정생활에서 겪는 고충이 크게 나타난다.

셋째, 心理的 影響의 차원에서 보면, 직업에서의 불만족, 스트레스, 지나친 요구와 지나친 직업몰입등이 가족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직장에서의 요구가 너무 많고, 직장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가족원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족생활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직장생활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족들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構造的 방해이론과 感情的 방해이론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Jackson et al, 1985), Greenhaus & Beutell(1985)은 시간갈등, 피로갈등, 행동갈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제영(1988)의 연구에서는 이 3가지 차원중에서 시간갈등과 피로갈등을 합하여 상호역할갈등변수로 정의하여,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에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밖에도 김효선(1987)의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들의 가정생활의 특징을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단절과 의무적인 부성 그리고 가정에 대한 형식적인 충실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남편의 장시간 노동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時間的 制約의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남편이 가정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時間의 不足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동시에 피로나 행동의 측면에서도 직장일에 너무 장시간동안 몰입함으로써 가정생활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어버리는 문제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생활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부부의 지각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따른 生活時間構造의 實態는 어떠한가?

1-1. 남편의 職業勞動時間의 實態는 어떠한가?

1-2.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따라서 生活時間構造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家庭生活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男便과 婦人의 知覺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에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3-1.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男便의 知覺에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婦人의 知覺에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직업노동시간

직업노동시간이란 근무시간과 근무중 식사시간, 통근시간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업노동과 직접 관련하여 소비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 2)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는 직업노동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길거나 짧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남성,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 지속성있게 반응하는 경향으로서, 사회적 성역할규범에 대한 고착정도를 나타낸다.

##### 4)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는 남편이 직업노동과 관련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정생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諸問題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家庭生活이란 남편개인관련, 부인개인관련 그리고 가족관련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은 남편의 장시간 직업노동때문에 남편개인관련, 부인개인관련, 그리고 가족관련의 모든 가정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간갈등, 피로갈등, 행동갈등, 역할갈등 등의 諸問題를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 3. 조사방법 및 분석절차

#### 1) 측정도구

##### (1) 생활시간구조

생활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에 걸쳐 시간일지표(time diary)를 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10분단위로 조사하였다. 생활시간구조는 伊藤セツ(1983)의 분류에 기본하여, 크게 生理的 時間, 職業勞動時間, 家事的 時間, 社會文化的 時間의 4영역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 生理的 生活時間: 수면, 식사, 몸단장, 의료, 휴식

- 職業勞動時間: 근무시간, 근무중 식사시간, 통근시간

- 家事的 生活時間: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구매,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 가족원 돌보기, 가정관리

- 社會文化的 生活時間: 교양, 연수, 독서, 신문, TV시청,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가족단란, 대화, 외식, 취미, 운동, 산책, 오락, 방문, 교제, 사회중교활동

##### (2)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는 男便의 경우 '귀하의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婦人의 경우 '귀하의 남편의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대해서 길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척도는 Bird(1984)와 이기영(1987)의 성역할태도 척도를 참고로 하여, 성역할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선별하여, 총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남편이 0.632이고, 부인이 0.612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

##### (4)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

남편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은 森ます美(1989)의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男便의 경우, "귀하의 긴 근무시간은 귀하와 귀하의 가정생활에 여러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문제로 느끼십니까?"로, 婦人의 경우는 "귀하의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점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을 남편, 부인 각각에 대해 총 11가지의 문항에 대해 '전혀 문제가 안된다'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다'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남편 척도의 신뢰도는 0.918로, 또 부인 척도의 신뢰도는 0.87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가진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와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일지표를 통해서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행해졌다. 1차적으로 1992년 가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2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적으로 1993년 봄 4월에서 5월에 걸쳐 2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00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와 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학생들이 직접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설문지와 시간일지표 기입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뒤, 평일, 토요일, 일

요일의 3일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게 하였다. 이 중 330부만이 수집되었고, 또 회수된 자료 중에서도 총 292부만이 사용가능한 자료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는 남편이 직업을 가진 유자녀 부부의 경우인 227부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절차

남편의 생활시간구조를 크게 4영역으로 나누어 시간과 분단위로 계산하여, 직장노동시간에 따라서 생활시간구조가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해보았다. 그리고,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각 변수에 따라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각 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분류분석(MCA)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집 단	빈도(%)	변 수	집 단	빈도(%)
부인의 연령	23-29세	43( 19.2)	남편의 연령	26-29세	17( 7.6)
	30-39세	106( 47.3)		30-39세	111( 49.3)
	40-49세	51( 22.8)		40-49세	50( 22.2)
	50-59세	24( 10.7)		50세 이상	47( 20.9)
	계	224(100.0)		계	225(100.0)
부인의 학력	중졸 이하	11( 4.8)	남편의 학력	중졸 이하	3( 1.3)
	고 졸	90( 39.6)		고 졸	53( 23.6)
	초급대졸	23( 10.1)		초급대졸	15( 6.7)
	대졸 이상	103( 45.4)		대졸 이상	154( 68.4)
	계	227(100.0)		계	225(100.0)
남편의 직업	전문직	34( 15.2)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38( 18.4)
	경영관리직	78( 35.0)		101-130만원	33( 15.9)
	전문기술직	22( 9.9)		131-160만원	21( 11.6)
	사무직	34( 15.2)		161-200만원	31( 15.0)
	자영업자	39( 17.5)		201-250만원	32( 15.4)
	생산판매직	9( 3.9)		251-300만원	18( 8.7)
	기 타	7( 3.1)		301만원 이상	31( 15.0)
	계	223(100.0)		계	207(100.0)
막내자녀 연령	0- 2세	71( 32.0)	부인의 취업여부	취 업	109( 48.7)
	3- 6세	45( 20.3)		비취업	115( 51.3)
	7-12세	40( 18.0)		계	224(100.0)
	13-18세	39( 17.5)			
	19세 이상	27( 12.2)			
계	222(100.0)				
부인의 성역할태도	8점이하	13( 5.8)	남편의 성역할태도	8점이하	77( 34.1)
	9점-12점	79( 35.1)		9점-12점	104( 46.0)
	13점-16점	92( 40.9)		13점-216점	40( 17.7)
	17점 이상	41( 19.2)		17점 이상	5( 2.2)
	계	225(100.0)		계	226(100.0)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男便의 職業勞動時間 및 生活時間構造

###### 1) 男便의 職業勞動時間의 實態

본 조사 결과 나타난 남편의 직업노동의 실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근무노동시간과 근무중 식사시간, 그리고 통근시간을 모두 포함한 총직업노동시간의 길이는 平日 평균 11시간 43분이고, 土曜日은 8시간 20분이며, 日曜日은 1시간 13분이다. 총직업노동시간을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에는 13시간 이상인 경우가 28.6%로 가장 많고, 토요일에는 6시간이상 8시간미만인 경우가 2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즉, 남편은 평일에는 하루 1/2에 가까운 시간을, 토요일에는 1/3정도를 직업노

동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男便의 職業勞動時間에 따른 生活時間構造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따라 생활시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을 크게 '10시간미만', '10~11시간', '11~12시간', '12~13시간', '13시간이상'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에 따라 생리적 생활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표 4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生理的 生活時間의 측면에서 직업노동시간이 '10시간미만'인 집단과 '13시간이상'인 집단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10시간미만'인 집단의 생리적 생활시간은 10시간 25분인 반면, '13시간이상'인 집단은 8시간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약 2시간 21분이나 차이가 난다. 영역별로 볼 때, 수면시간

표 3. 남편의 직업노동시간 실태<sup>1)</sup>

단위: 빈도(%) (n=227)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근무노동 시 간	8시간 미만	51(22.5)	4시간 미만	45(19.8)	안한다	174(76.7)
	8-9시간	47(20.7)	4-5시간	53(23.4)	4시간 미만	25(11.0)
	9-10시간	56(24.6)	5-6시간	28(12.3)	4시간 이상	28(12.3)
	10-11시간	33(15.6)	6-7시간	19( 8.4)		
	11시간 이상	40(17.6)	7시간 이상	82(36.1)		
	평 균	551분(9시간 11분)	370분(6시간 10분)		64분(1시간 04분)	
근 무 중 식 사 시 간	안한다	39(17.2)	안한다	76(33.5)	안한다	212(93.4)
	30분 미만	4( 1.7)	30분 미만	6( 2.6)	한 다	15( 6.6)
	30분-60분	44(19.3)	30분--60분	45(19.8)		
	60분 이상	140(61.8)	60분 이상	100(44.1)		
		평 균	50.0분	36.0분		3.0분
통근시간	1시간 미만	46(20.4)	1시간 미만	53(23.2)	안한다	198(87.2)
	1시간-1시간 30분	40(17.6)	1시간-1시간 30분	46(20.3)	한 다	29(12.8)
	1시간 30분-2시간	50(22.0)	1시간 30분-2시간	46(20.3)		
	2시간-2시간 30분	51(22.4)	2시간-2시간 30분	44(19.4)		
	2시간 30분이상	40(17.6)	2시간 30분이상	38(16.7)		
	평 균	103분(1시간 43분)	95분(1시간 35분)		9분	
총 직 업 노동시간	10시간 미만	34(15.0)	6시간 미만	51(22.5)	안한다	174(76.7)
	10-11시간	45(19.8)	6- 8시간	67(29.5)	4시간 미만	25(11.0)
	11-12시간	39(17.2)	8-10시간	41(18.0)	4시간 이상	28(12.3)
	12-13시간	44(19.4)	10-12시간	32(14.1)		
	13시간 이상	65(28.6)	12시간 이상	36(15.9)		
	평 균	704분(11시간 43분)	501분(8시간 21분)		76분(1시간 16분)	

1) 총직업노동시간이란 근무노동시간+근무중 식사시간+통근시간을 말한다.



표 4. 직업노동시간에 따른 생활시간구조<sup>2)</sup>

단위(시간 : 분)

직업노동시간		평균	10시간미만 (N=34)	10-11 (N=45)	11-12 (N=39)	12-13 (N=44)	13시간이상 (N=65)	F값
생리적 생활시간	수면	7:26	8:29	7:52	7:34	7:05	6:45	3.65***
	식사	44	48	47	52	46	34	4.68**
	몸단장	46	54	52	46	40	40	3.64**
	휴식	11	14	20	16	6	6	1.96
	소 계	9:07	10:25	9:50	9:28	8:36	8:04	26.29***
가사적 생활시간	식생활 영역	2	1	5	1	1	1	1.58
	주생활 영역	5	13	5	2	7	2	1.77
	의생활 영역	-	-	-	-	-	-	1.07
	구매관련영역	1	7	-	-	-	-	5.49***
	자녀 신체적 돌보기	4	3	6	7	3	2	1.13
	자녀 비신체 돌보기	8	10	13	4	10	4	1.82
	가족원 돌보기	0	1	-	-	-	-	1.20
	가정관리	1	3	1	-	14	1	1.86
소 계	21	38	30	14	35	10	4.52**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교양, 연수	11	23	17	3	17	3	2.50*
	신문, 독서	29	52	31	33	30	13	4.66***
	TV, 라디오	1:08	94	74	84	65	42	6.36***
	가족단란외식	15	15	18	21	12	10	1.39
	취미	3	7	9	1	-	2	2.54*
	운동, 산책	13	33	15	9	14	3	4.72***
	오락, 여행	4	7	6	-	6	1	1.11
	교제, 방문	15	27	18	12	14	11	0.62
	종교사회활동	3	17	1	-	1	1	6.76***
	기타	7	24	8	8	3	-	5.24***
소 계	2:48	4:59	3:17	2:51	2:42	1:26	35.2 ***	

\*P<.05 \*\*P<.01 \*\*\*P<.001 2) '-' 표시는 0.5분미만인 경우임.

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의 식사 시간과 몸단장시간, 휴식시간에 있어서도 직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휴식시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생리적 생활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家事的 生活時間은 평일의 경우 워낙 남편들이 참여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직업노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짧은 경우보다도 더 심하게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가사적 생활시간은 직업노동시간이 13시간 이상인 집단은 10분이고, 직업노동시간이 짧은 10시간미

만집단은 38분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社會文化的 生活時間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직업노동시간이 '10시간미만'인 집단의 평일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은 평균 4시간 59분 정도 되는 반면, 직업노동시간이 '13시간이상'인 집단의 평일 사회문화적 시간은 1시간26분밖에 되지 않아 그 차이가 3시간 반이 넘는다. 가족단란이나 외식, 오락이나 여행, 교제나 방문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직업노동시간집단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남편의 지각

문항	(1) 전혀	(2) 별로	(3) 문제가	(4) 아주	평균(표준편차)
	문제가 안된다	문제가 안된다	되는 편이다	심각한 문제다	
1.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3.6	39.1	48.9	8.4	2.62(.69)
2.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13.3	52.0	28.0	6.7	2.28(.78)
3. 생활전반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6.7	38.4	43.8	11.2	2.59(.78)
4. 항상 쫓기는 것처럼 정신적 여유가 없다	12.5	43.3	36.2	8.0	2.40(.81)
5. 가족단란시간이 없다	7.6	40.8	46.2	5.4	2.49(.72)
6. 취미와 교양, 스포츠를 할 시간이 없다	5.4	37.5	46.0	11.2	2.63(.75)
7. 신문이나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15.8	54.3	25.3	4.5	2.19(.75)
8.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7.2	43.7	40.1	9.0	2.51(.76)
9. 자녀와 놀거나 이야기, 공부를 봐줄 시간이 없다	8.6	37.8	39.6	14.0	2.59(.83)
10.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10.7	52.2	33.9	3.1	2.30(.70)
11. 집안일을 도와 줄 시간이 부족하다	11.7	54.3	31.4	2.7	2.25(.69)
전체	전체평균(문항평균)		표준편차		
	26.92 (2.45)		6.13		

2. 男便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

1)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남편의 지각정도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점수로 볼 때, 남편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각하는 문제는 '취미와 교양, 스포츠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와 '생활전반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와 '자녀와 놀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공부를 봐줄 시간이 없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단란시간이 없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남편의 지각수준을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남

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따른 생활시간구조와 연결시켜 보면, 생리적 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은 객관적인 생활시간상으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상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으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피로회복을 위한 수면등의 생리적 시간은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이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피로회복시간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하였다. 또 스포츠나 취미, 교양, 가족단란시간 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시간에서도 직업노동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지각적 측면에서도 직업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스포츠나 취미등의 여가시간과 가족과의 단란시간을 가지기 힘든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과 생리적 생활에서의 영향을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비교하면, '가사노동을 도와 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각하는 비율은 실제로 가사적 생활시간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34%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많은 남편들이 고정적인 성역할분담이라는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직업노동으로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은 당연히 부인이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실정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婦人의 지각정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점수로 볼 때, 부인이 가장 심각하게 지각하는 문제는 '남편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것으로 그 점수가 3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문제는 '가족단란의 시간이 없다'와 '남편이 자녀와 놀거나 이야기하고, 공부를 봐 줄 시간이 없다'는 것과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다', '남편과 취미, 스포츠를 할 시간이 없다',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간 대화시간이 부족하다'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매우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반면, 부인자신의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부인자신의 생활을 혼란시키고, 수면시간을 부족하게 한다든지, 밖에 일하러 나가기 어렵게 한다든지, 상을 두 번 차리는 수고를 하게 한다든지, 가사협력을 받을 수 없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별로 심각한 문제로 지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협력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별로 큰 문제로 생각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표 6.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부인의 지각

문항	(1) 전혀	(2) 별로	(3) 문제가	(4) 아주	평균(표준편차)
	문제가 안된다	문제가 안된다	되는 편이다	심각한 문제다	
1. 남편의 건강이 염려된다	1.8	16.1	53.4	28.7	3.09(.72)
2. 생활을 혼란시키고 수면시간을 부족하게 한다	18.8	35.9	36.8	8.5	2.35(.88)
3. 밖에 일하러 나가기가 어렵다	26.5	48.4	21.5	3.6	2.02(.79)
4. 상을 두 번 차리는 수고를 하게 한다	19.3	44.8	31.8	4.0	2.21(.80)
5. 가족단란시간이 없다	6.7	28.3	50.2	14.8	2.73(.79)
6. 남편과 취미, 스포츠를 할 시간이 없다	6.7	30.0	51.1	12.1	2.69(.77)
7.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가 없다	6.7	29.1	49.8	14.3	2.72(.79)
8.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8.0	33.0	50.4	8.5	2.59(.76)
9. 자녀와 놀거나 이야기, 공부를 봐줄 시간이 없다	9.9	21.6	54.1	14.4	2.73(.83)
10.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	11.2	35.3	40.2	13.4	2.56(.86)
11. 가사협력을 받을 수 없다	11.1	46.7	37.3	4.9	2.36(.74)
전체	전체평균(문항평균)		표준편차		
	28.09	(2.55)	5.80		

이는 부인들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성역할분담의 고정화를 전제로 한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男便의 長時間勞動으로 인한 家庭生活問題에 대한 知覺에 관련된 변수

본 절에서는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에 관련된 변수를 사회인구학적 변수, 직업노동시간관련 변수 및 성역할태도 변수로 나누어 분산분석을 한 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만을 가지고, 제 변수들이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위해서 중분류분석(MCA)을 실시해 보았다.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전체에 대한 중분류분석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막내자녀연령과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변수는 .001이하수준에서, 직업노동시간은 .01이하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에서 보면, 막내자녀연령이 0세~2세인 경우에 총평균으로부터 1.70점이나 더 많은 수준에서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를 더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직업노동시간이 길다고 느낄수록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객관적 노동시간 또한 예상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이 길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beta$ 값을 통해서 볼 때,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beta=.36$ )가 종속변수인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이 막내자녀연령( $\beta=.26$ ), 객관적 직업노동시간( $\beta=.22$ )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4변수들의 설명력은 30.1%이다.

다음 표 8에서는 남편의 장시간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인의 지각과 관련된 변

표 7.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남편의 지각의 중분류분석

변 수	구 분	빈 도	통제되지 않은 편차	통제된 편차
총평균=26.879			Eta	Beta
막내자녀연령***	0세 - 2세	68	2.15	1.65
	3세 - 6세	41	-2.22	-2.64
	7세 - 12세	35	.619	1.16
	13세 - 18세	36	-.49	-.43
	19세 이상	26	-2.26	-1.12
				.29
부인의 취업여부	취 업	99	.82	.42
	비취업	107	-.76	-.39
			.13	.07
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짧거나 적당하다	97	-2.35	-1.84
	길 다	83	.96	.57
	상당히길다	26	5.70	5.07
			.43	.36
객관적 노동시간**	600분미만	29	-4.15	-2.88
	600분 - 700분	63	-1.29	-.51
	700분 - 800분	61	1.60	1.01
	800분이상	53	1.97	1.01
			.35	.22
Multiple R Squared			.306	
Multiple R			.553	

\*P<.05 \*\*P<.01 \*\*\*P<.001

표 8.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부인의 지각의 중분류분석

변 수	구 분	빈 도	통제되지 않은 편차	통제된 편차
총평균=28.068			Eta	Beta
막내자녀연령*	0세 - 2세	66	2.54	1.94
	3세 - 6세	43	-.84	-.63
	7세 - 12세	37	-1.01	-1.01
	13세 - 18세	35	-.70	-.83
	19세 이상	25	-2.79	-1.37
			.31	.23
부인의 취업여부	취업	106	.82	.65
	비취업	100	-.87	-.69
			.14	.11
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짧거나 적당하다	85	-1.88	-1.59
	길다	59	.32	.20
	상당히길다	62	2.27	1.99
			.30	.25
성역할태도*	보수적	66	-2.05	-1.31
	중간적	101	.91	.89
	진보적	39	1.11	-.09
			.24	.16
Multiple R Squared			.197	
Multiple R			.444	

\*P<.05 \*\*P<.01 \*\*\*P<.001

수의 독립적 영향력이 잘 나타나 있다.

중분류분석결과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변수는 .01이하수준에서, 막내자녀연령과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05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에서 보면, 막내자녀연령이 0세~2세인 경우가 남편의 장시간노동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막내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형적인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노동시간이 길다고 할수록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인 경우가 비취업인 경우보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각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부인의 태도가 β값이 .25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고, 그 다

음으로 막내자녀연령(β=.23), 부인의 성역할태도(β=.16), 부인의 취업여부(β=.11)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4변수들의 설명력은 19.7%이다.

###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남편이 직업노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 12시간정도로 하루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평일에는 장시간의 직업노동시간을 제외하면 다음날의 勞動力再生産을 위한 기본적 생리적 시간만을 간신히 가질 수 있을 뿐, 자신의 여가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주어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공공영역인 직장생활에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인간적 생활속

에서 균형적으로 발달된 질 좋은 노동력이 재생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보다 均衡的인 勞動力이 再生産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속에서 肉體的 能力을 재생산하는 生理的 時間뿐 만 아니라, 精神的 能力을 재생산하는 社會文化的 時間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인간다운 삶과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을 일차적으로 규제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勤勞時間短縮은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週 5일 근무제 또는 週休 2일제나, 변형근로시간제, 交代制의 개선, 彈力的 勤務制度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은 실제로 객관적인 남편생활시간구조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이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주로 자신의 피로회복문제나 스포츠, 여가 시간, 가족단란시간, 자녀와 접촉할 시간의 부족문제를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생활시간구조에서도 직업노동시간으로 인해서 生理的 時間과 社會文化的 時間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식과 실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家事의 시간은 실제로 아주 미약한 수준에서 나타나면서도 인식상으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식과 실체가 불일치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인은 자기 개인관련 문제보다는 남편관련 또는 가족관련 문제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인 또한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 아직도 性役割固定觀念에 의한 역할분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편들의 장시간노동은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성역할의 고정화를 초래하여, 부부가 가정생활을 共同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平等的 시각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인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으로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平等的 家庭文化가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에 관련된 변수들을 본 결과, 막내 자녀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연령이 0세~2세인 경우에,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부인이 함께 다음세대를 담당할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자녀양육의 문제가 단순히 여성인 부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막내자녀가 0세~2세사이라는 것은 가족생활주기로 볼 때, 자녀에게 쏟아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로 특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단계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취업여성들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 '취업모를 위한 탁아제도'나 '母性保護制度'등만 언급되어 왔을 뿐, 취업한 남편들이 가정생활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겪는 고충은 무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부인과 함께 가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으로 '父性保護制度'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산휴가제도'나 '육아휴가제도' 등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직 보장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모범적인 기업에서는 '배우자 출산시 휴가'나 '스위트홈 휴가', '리프레시 풀 휴가'등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彈力的 勤務制度나 在宅勤務등을 통해서 시간적, 공간적인 직업제약으로 인한 자녀양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制限點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提言을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남편의 직업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시간'만을 중심으로 이것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다른 職業條件들(예를들면, 근무스케줄, 출장, 직업문화, 근무의 모임시간, 근무시간의 융통성 등)도 가정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업노동시간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시간갈등, 역할갈등, 피로갈등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 외에도 보다 心理的 차원원의 갈등이나 感情的 차원의 갈등 등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세째는 일반적 시간조사방법상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의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자 자신이 전날의 생활을 회상하여 기입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기록의 정확성과 동시행동의 분석에 있어서 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에서는 시간측정 방법론상에서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생활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경제기획원(1988). 한국의 사회지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2)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 국민일보, 1991년 1월 25일, 1992년 4월 22일.
- 4) 김의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김효선(1987). 회사원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남성의 적응과 소외. 이대 석사학위논문.
- 6) 노동부(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990, 1991). '노동통계연감'
- 7) 동아일보, 1990년 8월 4일, 1993년 4월 13일, 1993년 4월 21일, 1993년 5월 24일, 1993년 8월 17일, 1993년 9월 9일.
- 8) 삼성생명 홍보실(1993). '직장인의 시간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 9)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0) 안종태(1991). 근로시간 단축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 11) 윤명희 · 임정빈(1985).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12)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13) 이제영(1988).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4) 조선일보, 1992년 12월 14일, 1992년 12월 21일, 1993년 5월 31일, 1993년 9월 9일.
- 15) 조은숙(1990). 남편의 직무관련변수와 부인의 결혼적응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6) 최영기(1991). 근로시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17)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2).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조사.
- 18) 한국경제신문, 1990년 7월 30일.
- 19) 한국생산성본부(1988). 장시간노동의 원인구명 및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 20) Aldous, J.(1969).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Males' Role Performancs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707-712.
- 21) Bohem H.H., Viveros-Long A.(1981). *Balancing Job and Family Life*,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 22) Greenhaus, J.H., Beutell, N.J.(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 23) Jackson S., Zedeck S., Summers E.(1985). Family Life Disruption ; Effects of Job Induced Structural and Emotional Inter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3).
- 24) Jeylan T. M. & Jayne London.(1984). The Varying Linkages of Work and Family, pp 20-35 in P. Voydanoff(ed) *Work and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25) Kamo, Y.(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June.
- 26) Kanter, R. M.(1977). *Work and Family in the U. S. ; A Critical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27) Keith P.M., Schafer, R.P.(1980). Role Strain and D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 34.
- 28) Nickols S.Y., M.Abdel-Ghany(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29) Nickols S.Y., E.J. Metzzen(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 30) Piotrkowski, C.S., R.N. Rapoport, R. Rapoport (1988). Families and Work, pp251-283. in M.B. Sussman & S.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 Plenum Press.

- 31) Piotrkowski, C.S.(1978). *Work and the Family System*, New York ; Free Press.
- 32) Pleck, J.H., Staines, G.L., & Lang, L.(1980). 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Monthly Labor Review* 103(3), 29-32.
- 33) Scanzoni J.H.(1970). *Opportunity and the Family*, New York ; Free Press.
- 34) Sharon Y. Nickols & Mohamed Abdel-Ghany(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35) Voydanoff, P. & Kelly, 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 36) Voydanoff, P.(1984). *Work and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37) 森ます美(1983). 妻の就業の夫妻の生活時間, pp78-114 in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 生活時間, 光生館.
- 38) 森ます美(1989). 長時間労働と家庭生活, pp43-65 in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光生館.
- 39) 伊藤セツ(1989). 第1章 調査論と調査対象, pp1-29 in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光生館.